

野 “전 정권 탄압·보복 수사, 범국민 저항운동 벌이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반발 국힘 “사법·감사 영역에 성역 없다” 맞붙...국감 앞 기싸움 팽팽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당장,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인 정대호 의원은 전날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발언을 소개하며 “전(全)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고 강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조금더’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추진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정치 보복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내는 게 아닐까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민주당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차사·비속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전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통보한 시점(지난달 28일)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는 점에서.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감사 영역에 성역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을 법의 심판에 맡겼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거부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이를 반영하듯,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야 “정치보복 중단하라”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호남, 특정 정당 벗어나 경쟁 세력 육성해야”

지역 활동가 등 국회서 토론회 박주선 전 부의장 축사...조수진 주판

호남지역 지식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호남 정치를 직접 조명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 최근 열린 ‘호남,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호남대안포럼과 지역평등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관했다.

이 토론회에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호남이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을 거론했다. 박 전 부의장은 “현재 호남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면 어느 누구도 ‘호남은 이제에 변해야 한

다’는 당위와 필요에 대해 부인할 분은 없을 것”이라며 “호남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무비판적 지지와 비호는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 호남에 대한 출대와 차별을 가져오고 호남의 소외와 고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이 소망하고 호남이 갈망하는 정권교체와 호남집권을 위해 쿠데타 세력과도 손을 잡아 DJP 연합(김대중-김종필 연합내각)을 이끌어냈다”며 호남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정관 전남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포스트DJ 시대 호남정치의 흐름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호남정치는 최근 정치인의 전반적인 교체로 개혁 이미지는 만

들었다. 민주당 안에서의 지도적 역량은 매우 약화된 상태이다. 이제는 될 사람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호남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쟁적 정당 정치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어갈 수 없으면 국민의힘이 호남에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호남정치가 추구해야 할 전략적 변화로 ▲지방정당에 대한 제도적 허용을 통한 호남과 영남 문제에 동시 해결 ▲경쟁하는 정치세력과 정당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조귀동 작가가 ‘지방소멸 시대의 호남 발전’에 대해,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위원장이 ‘호남, 지역문제 아닌 이념과 체제 선택의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나섰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쌀값 안정 ‘현장행보’

해남 옥천면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일 벼 수확 현장을 찾아 직접 에로사향을 듣고, 쌀 수급 안정화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해남 옥천면 들녘을 찾은 김 지사는 임정모

농협전남지역본부 부분부장, 윤치영 옥천농협조합장,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송광종 월평마을 이장 등이 함께해 수확기 농업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계획과 향후 쌀값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생육초기 간척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에 의한 생육이 다소 저조했으나, 생육중기 이후 전

반적인 기상여건이 양호한 상태다. 수확기 병해충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으면 전국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만 가소환 386만t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30년만에 50%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록 지사는 농민들에게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보전 대책 등을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개천절 ‘민생’ 외친 여야

외교 참사·서면조사 놓고 “국정 휘방” vs “외교참사 감추기” 공세

여야는 3일 개천절을 맞아 ‘민생 우선’을 강조했다.

여야는 또 순방 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등으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날이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락을 위한 국정 휘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뒤 “야당이 민생의 장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개천절을 맞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할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인 채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